

# 정부, 공공기관 합동채용 실시

### 참여기관 지난해 43개 → 올해 67개로 늘어... 동일한 분야 내 대·소규모 기관 별도 나뉘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올해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금년에도 공공기관 합동채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지난해 43개에서 올해 67개로 24개가 늘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에 따라 유사 분야의 공공기관들은 같은 날짜에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동시에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한국도로공사

와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날 필기를 진행한다.

합동채용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응시자가 중복합격해 타 응시자의 채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과반수 기관에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동일한 분야 내에서도 대규모·소규모 기관을 별도로 나뉘어 합동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합동채용은 크게 정책금융(11개), 에너지(16개), 사회간접자본(SOC·14개), 농림·환경·산업진흥·중소기업(13개), 보건의료·고용복지·문화예술·교육(13개)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상반기 주요 기관들의 채용일정을 보면, 정책금융 분야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내달 28일 동시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또 에너지 분야의 한전,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등도 4월28일이 필기시험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은 5월19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합동채용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필요시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선임

카카오가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사업목적에 여행업을 추가했다.

카카오는 16일 제주도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에서 '제2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여민수·조수용 공동 대표이사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임기가 만료된 송지호 사내이사와 조민식·최재홍·피아오안리·조규진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이규철 어피티 에퀴티 파트너스 한국대표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사업목적에 '일반 여행업'을 추가했다. 인터넷 쇼핑 서비스인 카카오 메이커스에 여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민수 대표는 "IT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이 때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카카오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힘없이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수용 대표도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주주들에게는 더 큰 가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 크루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카카오만의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신임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카카오 공동체 내 다양한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확대할 것"이라며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중소기업 가고 창업해도 성공하도록 길 열어줘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절벽 예상 특별 조치 GM과 진정성 갖고 협상... 철수 시나리오도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소기업에 가거나 창업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도 자부심을 갖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폭 지원키로 한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its 라디오 '김이준의 뉴스공방'에 출연해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쪽을 지원해야지, 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대기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5%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앞으로 4년 동안은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39만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진다”며 “고용절벽이 예상돼 정부가 일단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다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다.

대기업 보수 수준의 90%가 넘는 정도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대해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면서 “지나치게 재정상 부담은 없다”고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나름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 등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철강 관세 문제는)미국 재무장관과 여러차례 만났고, 편지도 보냈다.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가서도 따로 만나게 돼 있다”며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정부는 전 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러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FTA 협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 GM과의 협상에서 경영 정상화 뿐 아니라 완전 철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나를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완전 철수하는 상황) 시나리오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에 보고받기로, GM쪽에서 완전 철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진정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협상하고 실사에 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GM 지원을 위해 제시한 세가지 원칙 중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부분을 통해, GM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GM이 한국 시장에서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는 투자 계획을 약속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는 신차 배정과 한국GM이 경쟁력을 가진 연구개발(R&D) 부문”이라며 “지속적인 경영이 담보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의 전원 면직 처리는 누구의 아이디어냐는 질문에 “정부의 아이디어다. 공동으로 봐달라”고 했다.

/뉴시스

##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19일만 1000억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지난 13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출시 49일만에 판매 한도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9일간 하루 평균 대출 약정 체결 금액은 21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전조회 누적건수는 10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23일 모바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특별 한정판매 형식으로 출시했다.

출시 직후 신청자가 몰려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1000억원의 한도 금액을 두고 소진 시점까지 하루 대출 실행 제한을 둔 바 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지속적인 고객 유입에도 IT 운영·서류 심사·고객센터 등을 비롯한 전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자체 조사 결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 대출 중단없

이 바로 상시 판매로 전환한다고 카카오뱅크는 밝혔다.

대출 약정 고객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40대가 89%로 압도적이었다. 2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8%와 3%였다.

시간대별 이용 현황에서는 은행 영업의 시간(주말·공휴일 포함) 서류제출 비율이 46%, 대출 약정 체결은 63%로 나타났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날을 포함한 휴일 대출 실행 비율은 전체 대출의 11%로, 휴일 대출 실행 수요가 확인됐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에서 보다 원활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